안거기간 반추해 자신의 정진 돌아보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當機一句千古輝(당기일구천고휘)요 臨機不變是丈夫(임기불변시장부)로다

기틀을 당한 일구는 천년토록 빛남이요 위태로움에 다다라 변치 않아야 장부로다.

금일은 삼복폭염(三伏暴炎)의 하안거(夏安居) 결제를 마치는 해제일((解制)日)이라. 구순(九旬)의 날들을 유례(類例)없는 무더위 속에서 화두와 씨름하고 더위와 싸우면서 안거를 마치게 되었다.

추운겨울이 되어야 상록수(常綠樹)의 진가(眞價)를 알 수 있듯이, 금년의 무더위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진일여(精進一如) 하여야만, 본인의 살림살이가 드러나고 공부의 진취(進就)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진정한 수행자라면 추위와 더위, 주림과 포만, 풍족과 궁핍 등 환경과 무관하게 정진에만 몰두하여야 할 것이다.

금년의 안거기간을 반추(反芻)하여 이번 무더위에 과연 자신의 정진(精進)은 어떠했는지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

이 더위에 화두가 순일하지 않았다면 죽음의 고통에 이르러서는 어찌 할 것인가! 혹서(酷暑)의 무더위동안 '이 더위가 지나면 가을에는 열심히 정진하리라' 는 생각으로, 미루고 게으른 마음을 가졌다면 그 날이 영원히 오지 않을 수 있다.

미루고 미루어서 오늘에 이르렀음에 다시 다음으로 미룬다면 어느 생에 다시 부처님 법을 만나고 심인법(心印法)을 만나서 대오견성(大悟見性)할 것인가. 내일도 기약하기 어려운 것이 인생(人生)이고 자연의 이치(理致)이다.

그러니 해제일 되었다고 화두를 내팽개치고 정신없이 돌아다녀서는 아니 되며, 산천에 마음을 빼앗겨 화두를 걸망에 넣어두고 유랑(流浪)을 다녀서도 아니 될 것이라. 가일층(加一層) 분발심을 가지고 정진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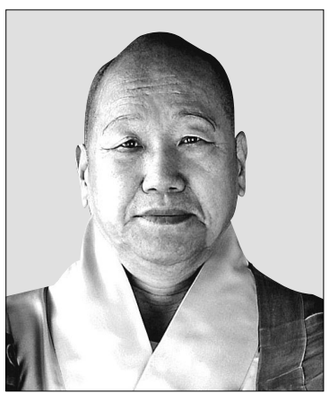
부처님의 진리는, 인간의 모든 허상(虛相)과 모든 유형지물(有形之物)을 타파해야만 진리의 참모습이 현전(現前)되는 법이다. 모든 번뇌가 다하고 참모습이 드러난 거기에는 상대(相對)가 다 끊어지고 없다. 거기는 영겁(永劫)토록 나고 죽고 변하는 법이 없다.

이 우주는 이렇게 있다가도 여러 억만 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없어진다. 그리하여 거기에서 다시 이루어졌다가 또 없어지고 하는데, 우주가 이러한 성주괴공(成住壞空)을 낙동강의 모래알 숫자만큼이나 무수히 반복한다 해도,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이 이 진리의 살림살이이다.

그러니 이러한 진리의 살림살이를 수용하여 생사안두(生死岸頭)에서 자유인이 되고, 살활종탈(殺活縱奪), 여탈자재(與奪自在)의 수완을 갖춘 대자재인(大自在人)이 되어야 비로소 대장부할 일을 다 해 마친 사람이라 하리라.

화두가 있는 이는 각자 화두를 챙기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화두를 들고 오매불망(寤寐不忘)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야 함이로다.

화두를 챙기고 의심을 쭈욱 밀어주기를 하루에도 천 번 만 번 반복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화두의심한 생각이 끊어짐이 없도록 혼신을 다해 참구해야 함이로다.



그렇게 혼신의 정력을 쏟아 무한히 노력하다 보면 문득 참의심이 발동하여 화두의심 한 생각만이 또렷이 드러나게 된다.

가나오나, 앉으나 서나, 밥을 지으나 청소를 하나, 일을 하나 잠을 자나, 일체처일체시(一切處一切時)에 화두 한 생각만 흐르는 냇물처럼 끊어짐 없이 흘러가게 된다.

이때에는 사물을 봐도 본 줄을 모르고 소리를 들어도 들은 줄을 모르게 되어 다겁다생(多劫多生)에 지어온 모든 습기(習氣)가 다 녹아 없어져 버리게 됨이로다.

이러한 상태로 몇 달이고 일 년이고, 시간이 흐르고 흐르다가 홀연히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화두가 박살이 남과 동시에 자기의 참모습이 환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로다.

〈중략〉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에 대구 동화사(桐華寺)에서 설석우(薛石友) 선사의 추모재일(追慕齋日)에 , 효봉(曉峰) 선사께서 상당(上堂)하시어 대중에게 물음을 던지셨다.

"옛날 보화(普化)는 전신(全身)을 관속에다 벗어 버리고 허공중에 요령소리만 남기고 가셨거니와, 이제 보화(普化)는 어떻게 가셨느냐?"

이에 당시 동화사 금당(金堂)선원 입승(立繩)을 보던 명허(明虛) 스님이 일어나서 벽력같은 '할(喝)' 을 했다.

"억!"

그러자 효봉 선사께서, "그런 쓸데없는 '할' 함부로 하지 마라!" 하고 호통을 치시니, 명허 스님은 "제가 '할' 한 뜻도 모르시면서 어찌 부인하십니까?" 하였다.

이에 효봉 선사께서, "옛날 중국에 흥화 존장선사 회상에서 대중들이 동당(東堂)에서도 '할' 을 하고 서당(西堂)에서도 '할' 을 해대니, 흥화 선사께서 상당하시어 '만약 대중이 할을 해서 노승(老僧)을 삼십삼천(三十三天)까지 오르게 하여, 노승이 거기에서 땅에 떨어져 기식(氣息)을 잃었다가 다시 깨어난다 해도, 그 할을 옳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고인(古人)의 말씀을 들면서 '할' 을 그만하라 하시고 대중에게 다시 물으셨다.

"다시 이를 자 없느냐?"

그래서 산승(山僧)이 일어나 답하기를, "옛날 보화도 이렇게 가셨고, 이제 보화도 이렇게 가셨습니다" 하니, 효봉 선사께서 만면에 웃음을 띠고 "모름지기 답은 이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필경(畢竟)일구(一句)는 어떠한가?

萬古徽然何處覓(만고휘연하처멱)
月落三更穿市過(월락삼경천시과)

만고에 아름다운 것을 어디에서 찾을꼬 삼경에 달이 지니 저자를 뚫고 지나감이로다.

해제 대신 참회정진으로 보답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석가세존께서 영산회상(靈山會上)에서 정법안장 열반묘심 실상무상 미묘법문 불립문자 교외별전(正法眼藏 涅槃妙心 實相無相 微妙法門 不立文字 敎外別傳)을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마하가섭 존자에게 부촉(付囑)하신 것은 우리 불교의 금강보검(金剛寶劍)의 진면목을 시현(示顯)하신 것은 더없는 본분사(本分事)입니다. 서건사칠 동토이삼(西乾四七 東土二三)의 천축(天竺) 이십팔대와 동방(東邦) 육대(六代)에 이르러 황면노사(黃面老師)의 금구성언(金口聖言)과 육조돈법(六祖頓法)은 해동(海東)의 태고(太古)에 미쳐 잠시도 멈춘 바 없이 계계승승(繼繼承承)하여 태고종문(太古宗門)의 제일의 종승(宗乘)으로 현금(現今)에 미치고 있습니다. 세세생생(世世生生) 변함없이 전승되어 종문적자(宗門嫡子)들의 정통법맥(正統法脈)은 조계산(曹溪山) 선불장(選佛場)에서 꽃을 피우리라 확신합니다.

오늘은 무술년 하안거 해제일(解制日)입니다. 순간순간이 무금(無今)이요 찰나찰나가 영원이지만, 어리석은 범부중생(凡夫重生)은 삼세(三世)를 분간하고 동서남북을 구분 짓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렇지만 생명이 붙은 존재는 시(時)와 공(空)을 떠나서 존립하기가 어려운 것이 실상세계(實相世界)의 철리(哲理)요 이법(理法)입니다.

산문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 계곡물 흘러가는 소리에 마음이 맑아지고 해가 서산마루에 걸리면 새들도 잠을 자려고 소리를 멈춥니다. 우리 불교는 본래 이런 도리를 중생들에게 알려주고 안심입명처(安心立命處)의 깊은 밀지(密旨)를 전해주려는 것이 전부인데, 도성(都城)에서 사자후(獅子吼) 대신 괴성으로 민심을 어지럽게 하고 사회를 시끄럽게 한다면 본분납자(本分衲子)들의 정도(正道)가 아니라고 봅니다.

1만 태고종도는 4천 사암에서 해제 대신 참회정진(懺悔精進)으로 시은에 보답하는 각고면려(刻苦勉勵)의 정근으로 불국정토 구현을 위하여 염불소리 그치지 않기를 바라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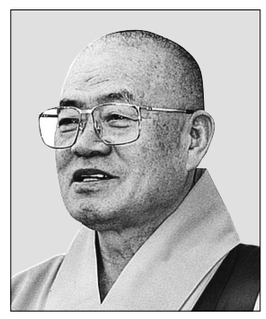
오늘 무술년 해제법어는 태고보우 원증국사의 시(詩) 한수로서 마치고자 합니다.

산 위엔 뜬 구름이 어이 그리 희고 흰가. 산 속엔 맑은 샘이 흐르고 또 흐르네. 흰 구름의 저 형용을 뉘라서 봐서 알까. 개었다 비가 왔다 번개 치듯 잘 변하고, 흐르는 샘물소리 뉘라서 들어 알리. 천 구비 만 구비 쉬지 않고 흐르누나.

희(噫)라!

용맹 더해 활구를 참상하라

쌍계총림 쌍계사 방장 고산 스님



木人歌曲石女舞(목인가곡석여무)요
火中生蓮太平歌(화중생련태평가)로다

雲散淸空明月照(운산청공명월조)요
千年古木生花發(천년고목생화발)이로다

나무사람 노래하니 돌여인이 춤을 추고 불꽃 가운데 연꽃이 피니 태평의 노래로다.

구름이 흩어진 맑은 하늘에 밝은 달이 비치고 천년 묵은 고목나무에 꽃이 피도다.

擧柱杖子(거주장자) 云(운) 敢問大衆(감문대중)하노니 若是柱杖子(약시주장자)인댄 卽隨有(즉수유)요
不是柱杖子(부시주장자)인댄 卽隨無(즉수무)니 如何卽是(여하즉시)오.
良久(양구)에 一喝(일갈) 云(운) 若道不得(약도부득)인댄 云何解制(운하해제)리오. 卽非他事(즉비타사)라.
分明自己事(분명자기사)어늘 何敢放逸(하감방일)하야 各分東西(각분동서)하며 之南之北麼(지남지북마)아?
更加勇猛(갱가용맹)하야 叅詳活句(참상활구)하야 直了大事(직료대사)어다.

주장자를 들고 이르시되 감히 대중에게 묻노니 만약 이것이 주장자라 할진댄 곧 유에 떨어질 것이요, 이 주장자가 아니라 할진댄 곧 무에 떨어짐이니 어떻게 해야 곧 옳은고?

잠깐 있다가 "할"을 한번 하고 이르시되 만약 이르지 못할진댄 이를 어떻게 해제라 하리요.

곧 다른 이의 일이 아니라 분명히 자기의 일이거늘 어찌 감히 방일해서 각각 이 동서로 흩어지며 남으로 가고 북으로 가겠는가?

다시 용맹을 더해서 활구를 참상해서 바로 일대사를 요달할지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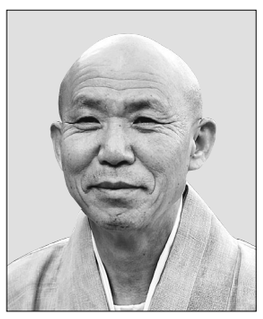
頌曰(송왈)
堂修禪加勇猛心(당수선가용맹심)하야 時時反照不休息(시시반조부휴식)이로다
一念觀照成三昧(일념관조성삼매)하고 頓亡自我證菩提(돈망자아증보제)로다

선방에 들어가서 참선함에 용맹심을 더해서 때때로 반조하여 쉬지 말지니라.

한 생각 관조하여 삼매를 이루고 몰록 자아를 잊고 보리를 증득할지어다.

食輪과 法輪, 둘이 아니다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



율장인 마하승기율에 "유이종륜(有二種輪)에 법륜식륜(法輪食輪)이요 득식륜이(得食輪已)에 내전법륜(乃轉法輪)이로다. 두 가지 수레바퀴가 있으니 법륜과 식륜이요, 식륜을 얻고나서야 제대로 법륜을 굴리는구나"라는 게송이 있습니다. 식륜이란 일상사 그리고 일용의 생활규칙 등을 수레바퀴에 비유한 말입니다. 총림의 대중들은 하루 세 번 공양하고 하루 세 번 예불합니다. 하안거 결제와 해제, 동안거 결제와 해제라는 수레바퀴 속에서 일상사를 굴리며 살아갑니다. 식륜 속에서 법륜을 굴릴 수 있고 법륜 속에서 또 식륜을 굴리는 것이 법륜상전(法輪常轉) 입니다.

임제문하 7세법손인 대우수지(大愚守芝)선사는 식륜(食輪)을 통해 법륜(法輪)을 밝힌 선지식입니다. 머물고 있는 대우산의 선방은 낡을 대로 낡았고 머무는 대중은 몇 명 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운봉문열(雲峰文悅)이 찾아옵니다.

"무엇 때문에 왔는가?"

"심법(心法)을 구하고자 왔습니다."

"나는 법륜(法輪) 법의 바퀴는 굴리지 못하고 식륜(食輪) 밥의 바퀴를 먼저 굴리고 있다. 후학들이 색력(色力) 즉 물질적인 힘만 좇아가고 있으니 어떻게 대중을 위해서 밥을 얻어오지 않을 수 있겠느냐? 굶주림을 참기에도 겨를이 없는데 어느 겨를에 너를 위해 설법해 주겠느냐?"

이것이 그 유명한 '법륜미전(法輪未轉) 식륜선전(食輪先轉)' 법문의 전말입니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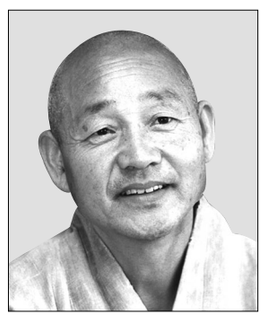
남송시대 임제종 양기파 무준사범(無準師範)선사는 "선인들은 법륜미전(法輪未轉)하고 식륜선전(食輪先轉)이라 했지만 나는 두 바퀴를 모두 굴린다"고 했습니다. 결제 때는 총림대중이 구순(九旬)동안 함께 모여 화합하며 식륜과 법륜을 굴렸고 해제 때는 흩어져 석달 동안 각자 자리에서 식륜과 법륜을 굴려야 합니다. 대중이 함께 법륜과 식륜을 굴리기는 쉬운 일이지만 혼자서 법륜과 식륜을 굴리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결제 때 공부한 힘으로 해제 때 어느 곳에 있더라도 법륜 굴리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식륜을 통해서 법륜이 더 단단해지고 법륜을 통해서 식륜이 더욱 순일해질 때 비로소 식륜과 법륜이 둘이 아닌 경지를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식륜기전(食輪旣轉)하고 법륜역전(法輪亦轉)하니 문미문법(聞未聞法)이요 득미증식(得未曾食)이라

밥의 수레바퀴는 이미 굴렸고 법의 수레바퀴를 또한 굴리니 이전에 듣지 못한 법을 들었고 일찍이 없던 음식을 얻었구나.

반야행자여! 회향의 길을 떠나자!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



火不能燒(화부능소)요 水不能溺(수부능약)이며 風不能飄(풍부능표)요 刀不能劈(도부능벽)이라

軟似兜羅(연사두라)하고 硬如鐵壁(경여철벽)하니 天上人間(천상인간)이 古今不識(고금부식)이로다.

불이 태우지 못하고 물이 빠트리지 못하며 바람이 날리지 못하고 칼도 자르지 못하네.

부드럽기는 도라솜 같고 단단하기는 철벽과 같으니 천상, 인간이 예나 지금이나 알지 못하네.

영축산중에서 하안거를 성만한 수행납자들은 우리 모두에게 본래 구족한 한 물건을 찾게 되었습니다. 폭염보다 더 치열한 구도심으로 정진했기에 나의 보물로 이 한 물건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늘 변하지 않고 신령스럽게 빛나는 한 물건은 중생이 오면 중생에 응하고, 중생에 응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묘용이 자재합니다.

이 한 물건의 묘용을 분명하게 본 사람은 한 방울의 물로도 바닷물이 짠 것을 알고, 아침저녁이면 부는 시원한 바람결에 가을이 오고 있음을 압니다. 소극적인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내고 산만한 사람은 차분하게 만들어 주며, 집착이 많은 사람은 걸림 없는 삶을 살게 하고 원력이 없는 사람은 장대한 원력을 세우게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불이 태우지 못하고 물이 빠트리지 못하는 한 물건을 분명히 알고 잘 활용할 수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털끝만큼이라도 본래 갖춘 능력을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화탕지옥의 고통에 자재하지 못하고 도산지옥의 과보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행히 영축산중에서 정진한 수행납자들은 부처님의 가피와 신심 있는 불자님의 후원 덕분에 한 물건을 잘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원만하게 구족하게 되었습니다. 이 능력과 안목은 중생의 행복을 위해 회향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걸망 속에 반야과(般若果)를 가득 담아서 일체중생이 반야지를 체득할 수 있도록 길을 떠나야 합니다. 수행납자가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 시주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은 청류교의 맑은 물로 중생의 열뇌를 식혀주고 무풍한송로의 시원하고 향긋한 바람으로 무명업장을 날려 주어야 합니다.

竹密不妨流水過(죽밀부방유수과)요
山高豈礙白雲飛(산고기애백운비)리오

대나무 빽빽해도 물 흐르는 일 방해하지 못하고 산 높아도 흰 구름 흘러감을 어찌 막으리.

지면 관계상 법어 전문을 싣지 못했습니다.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